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2378호 2024. 12. 8.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제1독서 : 바룩서 5,1-9

제2독서 :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4-6.8-11

복 음 : 루카 복음서 3,1-6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6



Sr.WonGabriela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 화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알렐루야.
-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초대받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대림 2주일**에 **‘인권 주일’** 이자 **‘사회 교리 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주일이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주님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대림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사회 교리 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승인
(출처: 매일미사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WonGabriela



신부님 말씀



3지구 응암동 성당
박동환 사도요한 신부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작은 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지요. 대림 시기를 맞아 우리 각자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있나요? 결심한 것이 없는 친구들은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결심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결심한 것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잘 지켜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에 앞서 온 세례자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잘 준비해서 그분을 기쁘게 맞으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은 꼭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데 그 중 한 번이 성탄 전 대림 시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사랑하고 지냈나 잘 돌아보고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준비하는 한 주 보내길 바라요.



소금통

Q.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를 ○○이라고 해요. ○○은 무엇일까요?

① 인권 ② 정권 ③ 삼권○○

(힌트! 오늘은 ○○주일 이기도 해요)



함께 사는 우리

잠원동 성당 3학년 조해인 에밀리아



에밀리아 어린이의 작품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이나 피부색,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인권'이라고 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권 주일을 맞아 이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어요.